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2년 4월

선교편지 제 152호



‘디고스 예일교회’가 어느덧 창립 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경험과 지식과 준비 없이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디고스 예일교회’를 개척하고,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른 현지 주민을 주님께 인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이 파란만장한 세월이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도 단순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이 쉬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 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고스 예일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한 개인이 변하고, 한 가정이 변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는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잃어 버린 양’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며, 소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의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임을 더욱 더 절실하게 깨닫기에 이 엄중한 일에 쓰임 받음을 감사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디고스 예일교회의 창립 7주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새롭게 다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이맘 때는 창립 6주년 기념 예배는 물론이고, 교인들이 교회에 함께 모이는 일조차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회를 더욱 더 사모하게 되었고, 예배가 더욱 더 간절해지고, 교인들이 더욱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점차 감소하게 되어, 일년 전보다는 훨씬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지침만 준수하면 인원수의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잠시 멈추었던 마을 주민을 향한 섬김의 사역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마을 주민을 위한 Feeding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아침 식사용으로 즐겨 먹는 닭고기로 만든 ‘루가우 (Lugaw)’를 준비하고, 마을 주민을 위한 각종 생필품을 나누어 주어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비록 방역 지침에 따라 의자 간격을 띄우고 창립 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려야만 했지만, 온 교우들이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온 교우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고, 더불어 7주년 기념 선물을 푸짐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형제 교회인 ‘아팔라야 예일교회’도 동일하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높이 찬양합니다. 이 날이 있기까지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고, 한 마음으로 동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 116:12)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